

검사자-피검사자 착석위치와 성차가 로샤(Rorschach) 반응에 미치는 효과

고 영 건 · 김 지 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과학교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 착석위치와 성차가 Rorschach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검사자는 모두 6명(남녀 각각 3명씩)이었으며 한 명의 검사자가 남자 피검자와 여자 피검자를 나란히 앉은 조건과 마주보면서 앉은 조건에서 두 번 씩 실시하여 총 8명의 피검자에게 Rorschach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들의 임상 경력은 평균 2년이었으며 로샤 실시 과정의 표준화 위해서 6명의 검사자 모두, 3차례씩 로샤검사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에 집단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시상의 오류를 교정받았다. 그리고 피검자들은 모두 한 대학의 심리학개론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이었으며 총 82명의 지원자들 중 남녀 각각 24명씩 총 48명을 무선적으로 추출한 다음에 4가지 조건(검사자-피검사자 간 성차×좌석배치)에 무선허당하였다.

본 연구 결과 Rorschach의 구조적 요약 변인들의 경우 AG 변인에 대해서만 착석위치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마주보고 앉는 경우에 비해 나란히 앉는 경우 피검자들은 피검사-검사자 간 성차와는 무관하게 AG 반응을 적게 나타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카드에서 실제적인 인간 관련 반응(H+ Hd)이 나타나는 빈도에서도 검사자와 피검자가 마주앉을 때보다 나란히 앉을 때 반응수가 적게 나타났다. 또한 검사자와 피검자가 마주앉는 경우, 첫 번째 카드에서 실제적인 인간 관련 반응을 보이는 것(H+Hd)이 후속 카드들에서도 실제적인 인간관련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란히 앉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나란히 앉는 때와는 달리, 마주보는 방식의 경우 피검자가 로샤 카드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면에 위치한 검사자가 단서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검사자와 피검자가 마주앉는 경우와 나란히 앉는 경우는 피검자로 하여금 서로 다른 형태의 반응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검자들은 좌석배치에 따라 상이한 반응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지 혜 /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 135-710 / FAX : 02-3410-0050 / E-mail : jihk@smc.samsung.co.kr

로샤(Rorschach)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자의 영향력, 즉 검사자에 의해 주어지는 단서 효과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chachtel(1945)과 Schafer(1954)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검사자-피검사 상호작용에 의해 검사 결과가 전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지라도, 잠재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자의 영향력 즉 검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단서는 어떤 검사 상황에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특히 로샤와 같은 투사적 검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로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검사자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결과들을 발견하였다. Lord(1950), Baughman(1951), Gibby, Miller, 그리고 Walker(1953) 등은 검사자들에 따라 프로토콜의 길이, 점수의 종류, 특히 순수 형태, 색채와 음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Masling(1965)은 검사자가 포즈, 제스처 그리고 안면 표정으로 피검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로샤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세팅(setting)은 검사자의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 양상이 피검자의 반응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로샤 검사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검사자-피검사 간 좌석의 배치 문제가 될 것이다.

Rorschach를 실시할 때의 검사자-피검사 좌석방식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은 검사자와 피검자가 나란히(side by side) 앉는 것이다. 이 방식은 Rorschach를 비롯하여 Klopfer와 Hertz 그리고 Piotrowski 등이 추천한 바 있으며(Piotrowsky, 1969), Exner(1993)도 종합체계(Comprehensive System)에서 이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다른 좌석 방법으로는 검사자가 피검자의 뒤에 앉는 방법인데 이는 Beck이 선호한 방식이다(Beck, S. J., Beck, A. G., Levitt, E. E., & Molish, H. B., 1961). 마지막으로 마주보는(face to face) 방법이 있는데 이는 인터뷰와 검사에 가장 자연스럽다는 점에

서 Rapaport가 주장한 방식이다(Exner, 1993).

이 세 가지 좌석방법 중에서 검사자의 포즈, 제스처 그리고 안면 표정 등이 피검자의 반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검사자가 피검사 뒤에 앉는 Beck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로샤검사 이외의 검사 상황 또는 인터뷰 상황과는 매우 이질적인 좌석배치라고 할 수 있다. Piotrowski(1958)가 이미 지적했던 대로, 로샤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전 검사 상황 혹은 인터뷰 상황에서의 좌석배치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심리검사를 배터리(battery)로 활용하는 장면에서는 Beck 식의 좌석배치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상 장면에서는 나란히 앉거나 마주보는 좌석배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직관적으로 볼 때 검사자와 피검자가 나란히 앉는 방식이 마주보는 방식에 비해 검사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영향을 덜 받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Exner, Leura 그리고 George(1976)는 로샤검사에서 검사자-피검사 간 좌석 배치가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24명의 자원한 학생들을 6명 씩 무선적으로 4집단으로 나누어 로샤검사에 대해 훈련시켰다. 그 중 두 집단은 마주보는 방식으로 앉아 실시하도록 배웠고 나머지 두 집단은 나란히 앉아 실시하도록 훈련받았다. 마주보는 집단과 나란히 앉는 집단 중 한 집단 씩은 유능한 검사자일수록 인간 반응을 더 많이 얻어낸다는 암시를 받았고 나머지 집단은 정반대의 암시를 받았다. 훈련이 끝난 후, 학생 검사자들은 각기 세 명의 피검자들을 검사하였고, 검사의 전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마주보는 방식으로 앉은 두 집단은 인간 대 동물 반응 비에 있어 예언된 방향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녹화 테이프를 통한 행동 평가는 피검자가 암시와 관련된 반응을 할 때 검사자가 더 많은 포즈, 제스처, 안면 표정 단서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나란히 앉는 방식을 사용한 집단에서도 검사자의 포즈, 제스처, 안면 표정에 대한 행동 평가 상에서는 유사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실제 검사자료의 인간 대 동

물 반응 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마주보는 것에 비해 나란히 앉는 것이 검사자가 보이는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피검자의 검사 반응에 적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시사해주며 동시에 마주보는 방식에 비해 나란히 앉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실시절차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Exner(1995)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의 저서, 『A Rorschach Workbook for the Comprehensive System』에서 로샤를 실시할 때 “검사자와 피검자가 마주보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며(should never be face to face)” 나란히 앉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하지만 로샤를 실시할 때의 좌석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된 기존의 연구들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 째, 검사 상황의 인위성 문제이다. 위의 Exner 등(1976)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자연스러운 검사 상황 하에서 실시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특정 반응과 관련된 유도 조건 하에서 실시된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Haller와 Exner(1985)는 상이한 지시문을 주어서 효과를 비교하는 조작을 가하였고 Fosberg(1938)는 피검자가 검사자에 대해서 최상과 최악의 인상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으며 Williams(1954)은 가능한 빠르게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조건을 설정하였고 Strauss(1968)는 검사자에게 많은 인간 움직임(M) 수나 높은 유채색 반응(FC, CF, C)이 나오도록 암시를 주는 절차를 사용하였다(Exner(1993)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특정 조작을 가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효과는 얻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자연스러운 검사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실제 임상 장면에서, 보통 검사자들은 그 어떠한 암시도 받지 않는다. 로샤를 실시할 때의 좌석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정보는 이렇게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좌석의 배치를 달리한 것이 피검자들의 검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 째, 검사자의 숙련도의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표준화된 실시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검사자들에게 특정 암시를 주거나 지시문을 변화시키는 등의 특정 조작을 가하였기 때문에 검사자들로 주로 임상적인 경험이 없는 자원한 대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로샤검사에서 검사자의 숙련도는 다른 어떤 심리검사에서도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험있는 검사자들과 그렇지 않은 검사자들이 서로 상이한 로샤검사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은 이미 Goodman(1979)이 규명한 바 있다. 물론 경험이 많은 검사자가 피검자들에게서 피검자들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검사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인 경험이 쌓일수록 검사자는 피검자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면 표정이나 제스처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사실 제아무리 유능한 검사자라 할 지라도 피검자의 검사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검사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에 따라 피검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아마도 기존의 연구들에서 좌석배치에 따라서 그러한 처치효과가 나타난 것은 임상적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자신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통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검사자들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숙련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좌석배치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셋 째, 좌석배치와 성차의 상호작용 문제이다. 이미 성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Goodman(1979)이 제시한 바 있다. Goodman은 10명의 남자 그리고 10 명의 여자 검사자들이 각각 2명의 남자 그리고 2 명의 여자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좌석의 배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석의 배치와 성차 변인들 간의 상호

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못하였다.

나란히 앉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검사자의 비언어적 행동에 의해 영향받는 피검자의 기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마주보는 것에 비해 나란히 앉을 때 검사자가 덜 의식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마주보는 경우에 비해 나란히 앉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피검자가 검사자를 더 의식하게 되고 또 더 신경쓰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차 변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Rapaport의 주장대로, 인터뷰와 검사에 가장 자연스러운 좌석배치는 마주보는 방식이 된다. 비록 검사 상황에서는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나란히 앉는 방식은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스럽지 않다. 특히 검사자와 피검자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면 나란히 앉는 경우처럼 이성의 검사자가 시야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좌석배치는 피검자로 하여금 부자연스럽고 방어적인 자세를 갖도록 자극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이성들끼리 앉을 경우 어떠한 좌석배치가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되는 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로샤 실시 과정에서 좌석배치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 성차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상의 고찰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와 피검자 간 착석위치와 성차가 Rorschach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로샤 실시에서의 좌석의 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당위론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지 않다. 사실 로샤 검사에서 좌석의 배치문제는 Exner(1993)가 『The Rorschach : A Comprehensive System』에서 지적한 바대로, 검사자가 어떠한 체계를 따르는가에 달려있다. 그의 주장대로, 검사자가 5가지 로샤 체계들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한 체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Rapaport의 마주보는 좌석배치(다른 모든 체계들에서는 반대하는 좌석배치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서

Klopfer, Beck, Piotrowski의 기준으로 반응을 채점하며,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적 가설들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여러 체계의 연구자료들을 끌어모으는”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5년 간 로샤연구에서 묻혀있던 주제를 다시금 부활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Schachtel(1945)이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서 살펴본 바대로, “로샤 검사상황의 역동성과 검사자-피검자간 상호작용 문제”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검사자-피검자 간 성차 및 좌석 배치 문제에 의해 로샤 검사의 수행이 전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검사 변인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로샤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석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검사자와 피검자 간 착석위치와 성차가 Rorschach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연구(pilot study)

앞서 지적한 바대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좌석의 배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샤의 실시과정에서 특정한 조작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인을 분석해야 할 지가 비교적 분명하였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검사 상황에서 좌석의 배치 및 검사자-피검자 간 성차에 의해 야기되는 효과들을 살펴보고자 할 경우, 아무런 처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힘들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부르게 이론적인 추론에 기초하여 분석 변인을 결정짓는 것은 “모델 설정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비 연구 과정에서 구조적 요약(structural summary) 자료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능한 모든 변인들의 조합(all possible combination)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분

석을 진행하였다. 예컨대, “인간반응이 평범반응으로 채점되는 카드들(Ⅲ, Ⅳ, Ⅶ, Ⅸ)에서의 인간 관련 반응수” 등이 후자의 예에 해당된다.

연구 방법

① 피검사
 피검자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자원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남녀 각각 12명씩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2.2 (±3.1)세였고 평균교육연수는 14.1(±1.3)년이었다.

② 검사자
 Rorschach를 실시한 검사자는 모두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로샤와 관련된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의 임상 경험 평균은 1.43년이었다.

③ 연구절차
 대학생과 대학원생 검사 희망자 32명 중에서 먼저 24명을 무선적으로 선정한 뒤 네 가지 조건에 무선 할당하였다. 이 때 검사자는 모두 6명(남녀 각각 3명씩)이었으며 한 명의 검사자가 남자 피검자와 여자 피검자를 나란히 앉은 조건과 마주보면서 앉는 조건에서 한 번 씩 실시하여 총 4명의 피검자에게 Rorschach를 실시하였다.

④ 검사의 실시, 채점 및 분석방법
 피검자들 Rorschach의 평균반응수는 21.41(±8.19)

였으며 24명 중 23명이 14개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었고 한 명이 13개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목적이 검사자-피검사 간 착석위치와 성차에 따라 전체 반응수를 포함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13개 반응을 나타낸 자료도 교정 절차없이 그대로 포함시켰다. 연구 변인인 착석위치를 제외한 Rorschach 실시 및 채점의 모든 과정은 Exner(1993)의 종합체계(Comprehensive System)를 따랐다.

연구 결과

Rorschach의 구조적인 요약 자료들 중 Exner(1993)가 로샤의 기준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포함시킨 112개의 변인들에 대한 착석위치 및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의 효과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은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Rorschach의 구조적인 요약 자료 중 변량분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예컨대, HVI, OBS 등) 임상적 의미에 따라 빈도 분석을 할 경우 유용한 정보가 추가되는 33개의 변인들(예컨대, EB style, Lambda 등)에 대해서는 Exner(1993)의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빈도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나 착석 위치 및 성차의 효과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탐색적으로 진행한 추가적인 분석 과정에서, 첫 번째 카드에서 “인간 관련 반응<H+Hd+(H)+(Hd)>”을 보이는

표 1. 검사자-피검사 착석위치 및 동성 여부와 카드에서의 인간반응 간 관계

착석위치	Rorschach 변인	검사자-피검사 간 동성	검사자-피검사 간 이성	Fisher의 정확확률 검증 유의도
나란히 앉기	인간 관련 반응 無(카드I)	6명	2명	.03
	인간 관련 반응 有(카드I)	0명	4명	
마주 보기	인간 관련 반응 無(카드I)	3명	3명	.72
	인간 관련 반응 有(카드I)	3명	3명	

* Fisher의 정확확률 검증 결과는 일방검증에서의 유의도 수준이며 인간반응은 H, Hd, (H), (Hd)를 모두 합한 것임

양상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성차와 착석위치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표 1 참조).

논의

사실 표 1의 통계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례수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어떤 통계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람들은 함께 있는 대상이 동성일 때보다는 이성일 경우에 상대방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주보는 경우에 비해서 나란히 앉을 경우에 그러한 상대방을 의식하는 경향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현상에 대한 발견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일방검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표 1의 결과는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정내릴 수 있다. 반면에 통계적 검증에서 제 2종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여 일방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표 1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확증적이라기 보다는 탐색적인 성격이 강한 예비연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자들은 표 1의 결과를 무시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그런 맥락에서 이후에 사례수를 더 증가시켜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계적인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수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통제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본 예비연구 과정에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피검자들의 동질성에 대한 고려이다. 본 예비연구에 포함된 피검자들은 서로 다른 대학의 검사 희망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교육연한이 달랐고 또 학업 능력 면에서 차이가 났다. 피검자의 지적 인 측면은 잠재적으로 로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학의 비슷한 교육연한을 지니 사람들을 표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피검자들의 성격적 특성 상의 차이에 대한 고려이다. 예비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할당된 피검자들이 개인차가 어느 정도로 통제되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MPI를 활용하여 각 집단에 할당된 피검자들의 개인차가 실제로 통제되었지를 스크리닝(screening)하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셋째, 검사자의 로샤 실시 과정을 표준화하는 문제이다. 본 예비연구에 참여한 검사자들의 임상 경험은 평균 1.43년이어서 어느 정도는 실시 상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래도 개인의 임상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인 실시절차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촬영을 통해 검사자들이 보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로샤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

연구 방법

① 피검자

피검자로는 한 대학의 심리학개론 수강생들이 참여하였다.

② 검사자

검사자는 모두 6명(남녀 각각 3명씩)이었으며 한 명의 검사자가 남자 피검자와 여자 피검자를 나란히 앉은 조건과 마주보면서 앉은 조건에서 두 번 씩 실시하여 총 8명의 피검자에게 Rorschach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들의 임상 경력은 평균 2년이었다. 로샤실시 과정의 표준화를 위해서 6명 모두 3차례씩 로샤검사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였으며 그 후에 집단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실시 상의 오류를 교정하였다.

표 2. 피검사자들의 인구학적 변인 및 MMPI 결과

변인	나란히 앉기		마주 앉기		F값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검사자-피검사자 이성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검사자-피검사자 이성	
성별					
남	6명	6명	6명	6명	
여	6명	6명	6명	6명	
연령	20.83(±1.27)	21.08(±1.78)	20.42(±1.62)	21.25(±2.01)	.55
교육연한	13.33(±.78)	13.00(±.60)	12.83(±.58)	13.50(±1.09)	1.79
MMPI					
L	50.77(±4.53)	51.97(±6.69)	52.61(±7.10)	54.82(±8.91)	.65
F	49.55(±5.78)	46.10(±5.98)	48.35(±6.62)	49.15(±6.51)	.92
K	56.31(±6.63)	52.70(±6.51)	55.00(±6.67)	52.46(±5.92)	2.32
1(Hs)	49.30(±7.27)	47.50(±7.74)	51.30(±6.95)	50.63(±8.92)	.41
2(D)	47.43(±6.69)	44.47(±7.06)	50.86(±6.86)	45.81(±6.29)	1.09
3(Hy)	50.35(±5.36)	47.31(±5.13)	51.23(±7.53)	47.31(±6.96)	.55
4(Pd)	49.28(±6.88)	50.38(±6.99)	50.40(±5.43)	46.73(±6.04)	.42
5(Mf)	50.12(±7.02)	52.10(±8.41)	48.95(±9.02)	45.16(±6.88)	1.42
6(Pa)	53.55(±4.98)	49.05(±6.76)	50.26(±5.84)	53.39(±7.85)	.74
7(Pt)	45.65(±8.51)	44.13(±7.65)	48.69(±6.31)	40.94(±6.79)	1.01
8(Sc)	52.66(±9.62)	43.16(±8.02)	49.34(±8.24)	47.17(±9.78)	1.47
9(Ma)	51.21(±6.71)	46.49(±9.07)	40.92(±8.74)	51.19(±7.60)	1.36
10(Si)	44.62(±8.30)	42.46(±5.19)	43.78(±7.21)	46.03(±5.02)	.20
ANX	42.94(±7.26)	47.52(±5.87)	43.90(±7.91)	48.69(±9.43)	.73
FRS	45.22(±9.03)	46.03(±7.55)	44.58(±8.56)	45.09(±9.37)	.07
OBS	43.37(±9.03)	43.34(±8.78)	42.09(±8.22)	48.91(±9.71)	1.04
DEP	45.88(±7.54)	44.69(±9.41)	48.42(±8.22)	50.11(±9.71)	.46
HEA	48.52(±7.91)	47.57(±9.00)	50.12(±8.16)	53.75(±7.76)	1.28
BIZ	49.71(±6.70)	45.54(±8.88)	44.31(±8.63)	49.42(±7.03)	1.84
ANG	44.52(±9.03)	48.99(±5.34)	43.25(±6.20)	48.89(±9.60)	2.35
CYN	46.97(±4.65)	50.03(±8.47)	46.47(±9.87)	49.25(±5.88)	.82
ASP	48.20(±9.78)	43.82(±8.89)	46.75(±5.50)	48.81(±7.23)	.37
HYP	47.10(±5.34)	48.54(±5.79)	44.57(±3.82)	50.79(±4.59)	1.11
LSE	45.56(±7.20)	47.50(±5.13)	43.40(±5.96)	47.31(±6.58)	.62
SOD	49.95(±5.88)	42.82(±2.05)	48.81(±5.47)	48.64(±5.10)	2.51
FAM	51.75(±5.25)	50.64(±4.55)	46.24(±4.50)	51.52(±5.72)	1.38
WRK	45.19(±6.61)	44.97(±7.47)	47.00(±5.35)	49.50(±5.76)	.44
TRT	45.78(±9.54)	46.54(±8.69)	46.75(±5.55)	51.89(±9.48)	1.77

③ 연구절차

총 82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먼저 남녀 각각 24명씩 전부 48명을 무선적으로 추출하였다. 그 다음에 이들을 4가지 조건, 즉 검사자-피검사자 간 동성이면서 나란히 앉는 조건(집단1), 검사자-피검사자 간 이성이면서 나란히 앉는 조건(집단2), 검사자-피검사자 간 동성이면서 마주보고 앉는 조건(집단3), 그리고 검사자-피검사자 간 이성이면서 마주보고 앉는 조건(집단4)에 무선헌당하였다. 무선헌당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48명 모두 MMPI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할당된 피검사자들의 인구학적 변인 및 MMPI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집단의 피검사자들 모두 연령 및 교육연한 그리고 MMPI의 임상척도와 내용척도의 T 점수에서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2).

④ 검사 실시, 채점 및 분석 방법

예비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변인인 착석위치를 제외한 Rorschach 실시 및 채점의 모든 과정은 Exner(1993)의 종합체계(Comprehensive System)를 따랐다. 그리고 본 연구 목적이 검사자-피검사자 간 착석위치와 성차에 따라 전체 반응수를 포함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13개 반응을 보인 자료도 교정절차없이 그대로 포함시켰다.

연구 결과

① 로샤의 구조적 요약 자료에 대한 분석 Rorschach의 구조적인 요약 자료들 중 Exner(1993)가 로샤의 기준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포함시킨 112개의 변인들에 대한 착석위치 및 검사자-피검사자 간 성차의 효과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AG 변인에 대해서만 좌석 배치의 주효과가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표 3). 마주보는 방식에 비하여 나란히 앉는 경우 평균 AG 반응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으며 검사자-피검사자 간 성차의 주효과와 성차와 좌석배치 간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05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rschach의 구조적인 요약 자료 중 변량분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예컨대, HVI, OBS 등) 임상적 의미에 따라 빈도 분석을 할 경우 유용한 정보가 추가되는 67개의 변인들(예컨대, EB style, Lambda 등)에 대해서는 역시 Exner(1993)의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빈도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나 착석 위치 및 성차의 효과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4). 표 3에서 마주보는 방식에 비해 나란히 앉는 경우 AG의 평균 반응수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AG 반응을 2개보다 더 많이 나타난 사람들 수에서는 두 가지 실시 조건 간에 .05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표 5에서처럼 “ $AG \geq 2$ ”를 기준으로해서 각 집단에서의 빈도를 살펴보면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주보는 방식에 비해 나란히 앉는 경우 AG 반응을 둘 이상 나타내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② 각 카드에서의 인간 관련 반응 비교

예비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각 카드에서의 인간 관련 반응수들을 비교해 본 결과, 첫 번째 카드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에서만 좌석배치의 주효과가 .0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나란히 앉는 방식에 비하여 마주보는 경우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검사자-피검사자 간 성차의 주효과와 성차와 좌석배치 간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05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장의 카드들에 대해서는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 관련 반응이 평범반응으로 채점된다는 점에서 인간관련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보고되는 카드들(Ⅲ, Ⅳ, Ⅶ, Ⅸ)과 I 번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Ⅱ, Ⅴ, Ⅵ, Ⅷ, Ⅹ)에서도 .0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나란히 앉는 방식의 경우 카드 I 에서 실제 인간 관련 반응(H+Hd)을 나타내는 것과 인간 관련 반응이 평범반응이 되는 카드들(Ⅲ, Ⅳ, Ⅶ, Ⅸ)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 카

표 3. Rorschach 변인들에 대한 검사자-피검사자 성차와 착색위치 효과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Rorschach 변인	나란히 앉기		마주 앉기		착색 위치 효과 <i>F</i> 값	성차 효과 의 <i>F</i> 값	착색 * 성차 <i>F</i> 값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검사자-피검사자 이성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검사자-피검사자 이성			
R	18.58(±4.99)	22.75(±8.73)	20.58(±6.85)	23.91(±9.99)	.45	2.51	.03
W	15.41(±4.54)	17.08(±8.21)	13.75(±7.88)	14.33(±6.47)	1.22	.32	.07
D	2.17(±2.25)	5.00(±1.91)	5.25(±4.41)	6.75(±6.97)	3.65	2.93	.28
Dd	1.00(±1.13)	1.67(±1.15)	1.58(±1.08)	1.93(±2.53)	2.85	.20	1.38
S	1.41(±1.16)	1.75(±.75)	1.37(±.95)	2.08(±1.56)	.43	2.81	2.93
DQ+	4.50(±4.25)	5.33(±2.83)	6.83(±4.38)	7.75(±7.76)	2.56	.35	.01
DQo	14.00(±3.81)	16.16(±8.33)	11.58(±3.34)	14.75(±6.60)	1.27	2.45	.09
DQv	.83(±.29)	1.25(±1.54)	1.54(±1.90)	1.65(±1.76)	2.61	.49	1.03
DQv/+	.08(±.39)	.09(±.49)	.17(±.38)	.18(±.39)	1.09	.09	.08
FQx+	.00(±.00)	.00(±.00)	.00(±.00)	.17(±.57)	1.00	1.00	1.00
FQxo	9.75(±3.33)	11.91(±5.96)	10.16(±3.01)	10.66(±2.83)	.13	1.38	.52
FQxu	5.16(±1.85)	7.33(±3.20)	6.16(±2.82)	6.25(±5.44)	.00	1.18	1.01
FQx-	3.66(±2.87)	3.50(±3.26)	3.83(±2.12)	6.33(±4.88)	2.28	1.38	1.80
FQxNone	.00(±.00)	3.18(±.75)	.41(±1.16)	.50(±.90)	2.57	.03	.03
MQ+	.00(±.00)	.00(±.00)	.00(±.00)	.16(±.57)	1.00	1.00	1.00
MQo	2.58(±2.42)	3.17(±1.40)	2.42(±1.88)	2.58(±1.97)	.04	1.22	.65
MQu	.45(±.45)	.83(±1.11)	.92(±1.56)	1.58(±3.94)	1.23	.96	.00
MQ-	.46(±.38)	.50(±1.16)	.50(±1.16)	1.00(±1.34)	1.77	1.77	.07
MQNone	.00(±.00)	.00(±.00)	.00(±.00)	.00(±.00)	.	.	.
SQual-	.41(±.79)	.33(±.65)	.08(±.29)	.58(±.90)	.04	1.07	2.09
M	3.50(±2.84)	4.50(±1.96)	4.58(±3.38)	5.33(±6.17)	2.38	2.30	.41
FM	2.55(±.95)	2.48(±1.16)	2.31(±1.56)	2.38(±3.11)	1.86	1.81	1.51
m	1.01(±.52)	.99(±1.04)	.85(±.45)	1.08(±1.08)	1.95	2.04	.12
FC	1.41(±.79)	1.58(±1.37)	1.16(±.83)	1.41(±.66)	.57	.57	.02
CF	.33(±.88)	.25(±.62)	.41(±.69)	.83(±.29)	.04	1.22	.44
C	.00(±.00)	.00(±.00)	.25(±.62)	.00(±.00)	1.94	1.94	1.94
Cn	.00(±.00)	.00(±.00)	.00(±.00)	.00(±.00)	.	.	.
Sum Color	1.74(±.84)	1.83(±.81)	1.82(±.71)	2.24(±.35)	.95	.94	.87
WSumC	2.13(±1.41)	2.33(±2.01)	3.29(±3.11)	2.04(±1.05)	.95	.93	1.56
SumC'	1.83(±1.47)	2.50(±2.54)	1.83(±1.33)	.67(±.49)	1.99	1.01	2.62
SumT	.25(±.62)	.65(±.81)	.33(±.49)	.23(±.49)	1.97	.71	2.01
SumV	.08(±.29)	.41(±.69)	.08(±.29)	.16(±.57)	1.54	3.47	.38

표 3. 계속

Rorschach 변인	나란히 앉기		마주 앉기		착석 위치 효과 F값	성차 효과 의 F값	착석 * 성차 F값
	검사자-피검자 동성	검사자-피검자 이성	검사자-피검자 동성	검사자-피검자 이성			
SumY	.92(±1.24)	.42(±.90)	1.16(±1.69)	.75(±1.28)	.59	1.46	.12
Sum Shading	3.08(±1.48)	2.98(±1.97)	3.40(±1.92)	1.81(±.89)	1.65	2.54	1.87
Fr+rF	.67(±.88)	.58(±1.24)	.58(±1.24)	.16(±.39)	.47	1.32	.14
FD	.50(±.52)	.17(±.38)	.33(±.49)	.67(±.88)	.97	1.00	3.67
F	8.50(±3.26)	10.33(±3.74)	7.91(±4.85)	6.92(±7.11)	1.94	.08	.97
(2)	3.08(±2.44)	4.25(±3.16)	4.53(±1.69)	4.68(±3.26)	3.34	3.44	2.17
3r+(2)/R	.22(±.18)	.26(±.14)	.33(±.23)	.24(±.06)	.61	.41	1.78
Lambda	.82(±.84)	.78(±.38)	.95(±1.18)	.86(±.68)	.35	.78	.06
FM+m	3.56(±1.02)	3.47(±1.09)	3.16(±1.41)	3.46(±1.12)	1.43	1.23	1.15
EA	5.63(±3.12)	6.83(±3.15)	7.87(±5.94)	7.37(±7.33)	1.51	.31	.77
es	6.64(±3.59)	6.45(±5.69)	6.56(±5.62)	5.27(±4.99)	1.14	.26	.11
D Score	-.33(±.88)	-.16(±1.11)	.00(±.95)	-.08(±1.44)	.42	.01	.15
Adj D	.08(±.79)	.33(±.65)	.58(±1.16)	.41(±1.78)	.73	.02	.37
a(active)	3.00(±1.41)	5.66(±3.72)	5.33(±5.63)	7.08(±2.17)	1.62	2.25	.09
p(pasive)	2.58(±3.08)	2.91(±2.77)	4.25(±2.19)	5.00(±5.35)	3.32	.28	.04
Ma	1.50(±1.34)	3.08(±2.06)	2.25(±3.22)	3.50(±5.26)	.75	3.01	.19
Mp	1.50(±1.97)	1.42(±1.50)	2.41(±1.56)	1.91(±2.71)	1.51	.26	.13
Intellect	2.50(±2.77)	2.66(±2.46)	2.08(±3.28)	3.58(±3.98)	.07	.82	.53
Zf	16.33(±5.21)	17.16(±8.45)	14.25(±7.41)	17.83(±9.76)	.09	.94	.37
Zd	1.58(±.52)	1.50(±.52)	1.58(±.52)	1.91(±.28)	.24	1.50	1.10
Blends	3.16(±2.12)	3.83(±3.29)	4.08(±3.70)	3.83(±3.78)	.23	.04	.23
Blends/R	.17(±.12)	.16(±.09)	.19(±.11)	.16(±.12)	.42	.08	.12
Col-Shd Bld	.25(±.45)	.33(±.88)	.18(±.66)	.33(±.65)	.19	.14	.11
Afr	.43(±.10)	.38(±.13)	.53(±.25)	.45(±.15)	2.89	1.73	.16
Populars	4.16(±1.52)	4.25(±1.28)	4.83(±2.12)	5.50(±1.83)	3.73	.57	.34
X+%	.52(±.07)	.53(±.14)	.50(±.07)	.49(±.12)	.78	.00	.10
F+%	.55(±.19)	.60(±.14)	.55(±.20)	.54(±.26)	1.31	.09	1.21
X-%	.13(±.14)	.14(±.10)	.17(±.09)	.19(±.11)	1.52	.03	1.58
Xu%	.18(±.13)	.16(±.04)	.16(±.17)	.17(±.11)	.93	.10	.11
S-%	.13(±.29)	.05(±.11)	.04(±.14)	.06(±.09)	.67	.40	1.02
Isolate/R	.10(±.07)	.15(±.06)	.18(±.14)	.12(±.10)	.66	.02	2.87
H	2.84(±2.02)	3.34(±1.60)	3.94(±2.00)	5.59(±4.50)	1.91	3.52	.02

표 3. 계속

Rorschach 변인	나란히 앉기		마주 앉기		착석 위치 효과 F값	성차 효과 의 F값	착석 * 성차 F값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검사자-피검사자 이성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검사자-피검사자 이성			
(H)	1.01(±.90)	2.00(±1.63)	1.33(±1.16)	.75(±1.31)	.07	1.29	1.71
Hd	.99(±.90)	1.16(±1.80)	.39(±.65)	1.08(±1.08)	.87	2.54	.03
(Hd)	.99(±.91)	.75(±.96)	.75(±1.13)	.83(±.62)	.09	.09	1.87
Hx	.33(±.65)	.17(±.39)	.33(±.65)	.75(±1.13)	1.78	.37	1.78
All H Cont	5.83(±2.75)	7.25(±3.69)	6.42(±2.71)	8.25(±5.17)	.54	2.29	.04
A	7.00(±2.30)	5.88(±1.78)	6.24(±2.43)	8.92(±3.31)	.18	.19	2.13
(A)	.50(±.52)	1.08(±1.78)	1.08(±.79)	.49(±1.16)	.15	.15	3.45
Ad	1.25(±1.26)	1.75(±1.71)	2.08(±1.56)	1.41(±3.14)	.17	.02	1.26
(Ad)	.33(±.49)	.08(±.29)	0.52(±1.08)	.33(±.49)	1.45	3.51	.45
An	.33(±.49)	.08(±.28)	.08(±.28)	.08(±.28)	.35	2.51	.35
Art	2.16(±1.93)	1.74(±1.16)	1.49(±2.32)	2.24(±1.24)	.23	.23	.65
Ay	.16(±.38)	.74(±1.16)	.08(±.28)	.33(±.45)	.92	2.08	.92
Bl	.00(±.00)	.33(±.62)	.42(±.39)	.00(±9.99)	.35	.35	3.19
Bt	1.08(±.93)	.91(±.88)	1.16(±.75)	.88(±1.00)	.10	.92	.18
Cg	1.66(±1.77)	1.91(±2.06)	1.75(±2.08)	3.33(±3.75)	1.33	3.11	.84
Cl	.15(±.34)	.12(±.11)	.31(±.66)	.08(±.29)	2.66	2.51	2.51
Ex	.08(±.29)	.24(±.57)	.33(±.38)	.25(±.45)	3.03	.76	.09
Fi	.40(±.62)	1.08(±1.31)	.66(±.57)	.81(±.77)	.59	1.08	.24
Food	.50(±.52)	.37(±.38)	.33(±.49)	.66(±.88)	2.87	1.27	2.02
Ge	.00(±.00)	.25(±.45)	.58(±.90)	.16(±9.99)	2.22	.25	3.03
Hh	.49(±.51)	1.24(±.98)	.49(±.66)	.66(±.66)	1.07	3.47	.38
Ls	.69(±.68)	1.44(±1.33)	.58(±.66)	.91(±1.19)	.45	3.09	1.58
Na	.25(±.62)	.24(±.38)	.57(±.99)	.08(±.28)	.67	1.96	.87
Sc	.91(±.90)	.74(±.99)	.58(±.65)	1.32(±1.72)	.18	1.45	.87
Sx	.08(±.49)	.08(±.00)	.00(±.00)	.08(±.28)	2.32	2.32	2.32
Xy	.00(±.00)	.08(±.28)	.25(±.45)	.08(±.00)	1.15	.51	2.31
Idio	.50(±.62)	1.00(±.96)	1.41(±1.70)	.74(±1.12)	.84	.31	2.74
DV1	.16(±.39)	.37(±.98)	.08(±.28)	.08(±.28)	3.39	1.73	1.64
INCOMI	.16(±.00)	.33(±.49)	.25(±.62)	.08(±.28)	1.56	.46	1.15
DR1	.00(±.00)	.58(±2.02)	.16(±.57)	.08(±.28)	.29	.66	1.18
FAB1	.25(±.62)	.25(±.45)	.50(±.79)	.41(±1.44)	.63	.03	.03
DV2	.00(±.00)	.00(±.00)	.00(±.00)	.00(±.00)	..	.	.
INC2	.00(±0.00)	.00(±.00)	.00(±.00)	.00(±.00)	.	.	.
DR2	.00(±.00)	.00(±.00)	.00(±.00)	.08(±.28)	1.00	1.00	1.00
FAB2	.00(±.00)	.00(±.00)	.00(±.00)	.00(±.00)	.	.	.
ALOG	.08(±.28)	.50(±.90)	.08(±.28)	.08(±.28)	1.95	1.95	1.95
CONTAM	.00(±.00)	.00(±.00)	.00(±.00)	.08(±.28)	1.00	1.00	1.00
Sum6 Sp Sc	.57(±.46)	1.53(±1.49)	.99(±.75)	.65(±.58)	.25	1.14	3.27
Sum6 Sp	.08(±.07)	.00(±.00)	.00(±.00)	.08(±.07)	1.78	.37	1.78
Sc2	1.58(±3.87)	6.58(±7.89)	4.58(±5.71)	3.58(±9.40)	.25	1.17	3.36
WSum6	.08(±.28)	.08(±.28)	.25(±.45)	.50(±1.44)	1.66	.31	.31
AB	.17(±.39)	.17(±.39)	.41(±.66)	1.00(±1.34)	5.48*	1.59	1.59
AG	.00(±.00)	.00(±.00)	.00(±.00)	.00(±.00)	.	.	.
CFB	.33(±.77)	.75(±.87)	.33(±.41)	.42(±.79)	.55	1.24	.53
COP	.00(±.00)	.00(±.00)	.00(±.00)	.00(±.00)	.	.	.
CP	.50(±.90)	.83(±1.19)	.83(±.93)	.33(±.49)	.09	.09	2.47
MOR	1.00(±.74)	.58(±1.16)	1.25(±1.74)	.83(±.93)	.51	1.41	.00
PER	.08(±.28)	.31(±.39)	.08(±.28)	.33(±.49)	1.78	2.37	1.08
PSV							

* $p < .05$

드 I 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Ⅱ, V, VI, Ⅷ, X)에
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 전체 카드들에서의 실
제 인간 관련 반응수들은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마주보고
앉는 방식의 경우, 카드 I 에서 실제 인간 관련 반응
(H+Hd)을 나타내는 것과 인간 관련 반응이 평범반응
이 아닌 카드들(Ⅱ, V, VI, Ⅷ, X)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 전체 카드들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

응수들은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카드 I 에서 실제 인간 관련 반응
(H+Hd)을 나타내는 것과 전체 카드들에서의 실제 인
간 관련 반응수들 간 상관계수는 두 집단 간에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주보고 앉는 경우 피검자는 실제 인간 관
련 반응을 나타내는 데 있어 상이한 반응패턴을 보
인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Rorschach 구조적 요약 변인들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Rorschach 변인	나란히 앉기		마주 앉기		x ² 값
	검사자-피검사자	검사자-피검사자	검사자-피검사자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이성	동성	이성	
EBstyle					
Introversive	6(33.3%)	6(25.0%)	4(25.0%)	6(50.0%)	1.01
Pervasive	0(0.0%)	1(8.3%)	1(8.3%)	0(0.0%)	2.09
Ambitent	2(16.7%)	2(16.7%)	4(33.3%)	3(25.0%)	1.29
Extratentive	3(25.0%)	2(16.7%)	3(25.0%)	2(16.7%)	.51
Pervasive	1(8.3%)	1(8.3%)	0(0.0%)	1(8.3%)	1.07
D Score					
D Score > 0	1(16.7%)	2(8.3%)	2(16.7%)	2(16.7%)	.50
D Score = 0	5(41.7%)	9(75.0%)	8(66.7%)	7(58.3%)	3.05
D Score < 0	6(50.0%)	1(8.3%)	1(8.3%)	2(8.3%)	6.95
D Score < -1	0(0.0%)	0(0.0%)	1(8.3%)	1(8.3%)	2.09
Adj D Score					
Adj D Score>0	2(0.0%)	2(0.0%)	3(0.0%)	2(0.0%)	.41
Adj D Score=0	8(0.0%)	9(0.0%)	8(0.0%)	9(0.0%)	.40
Adj D Score<0	2(0.0%)	1(0.0%)	1(0.0%)	1(0.0%)	1.07
Adj D Score<-1	0(0.0%)	0(0.0%)	0(0.0%)	0(0.0%)	.
Form Quality Deviations					
X+% > .89	0(0.0%)	0(0.0%)	0(0.0%)	0(0.0%)	.
X+% < .70	8(66.7%)	6(50.0%)	9(75.0%)	8(66.7%)	1.73
X+% < .61	4(0.0%)	6(50.0%)	6(50.0%)	7(58.3%)	1.58
X+% < .50	3(25.0%)	4(33.3%)	5(41.7%)	5(41.7%)	.76
F+% < .70	8(66.7%)	6(50.0%)	7(58.3%)	8(66.7%)	.96
Xu% > .20	4(33.3%)	3(25.0%)	2(16.7%)	3(25.0%)	1.42
X-% > .15	2(16.7%)	2(16.7%)	3(25.0%)	2(16.7%)	.41
X-% > .20	1(8.3%)	2(16.7%)	2(16.7%)	1(8.3%)	.76
X-% > .30	1(8.3%)	0(0.0%)	1(8.3%)	0(0.0%)	2.09

표 4. 계속

Rorschach 변인	나란히 앉기		마주 앉기		x ² 값
	검사자-피검사 동성	검사자-피검사 이성	검사자-피검사 동성	검사자-피검사 이성	
FC : CF+C Ratio					
FC > (CF+C)+2	5(41.7%)	8(66.7%)	6(50.0%)	8(66.7%)	2.28
FC > (CF+C)+1	1(8.3%)	4(33.3%)	1(8.3%)	1(8.3%)	4.51
(CF+C) > FC+1	4(33.3%)	0(0.0%)	3(25.0%)	3(25.0%)	4.54
(CF+C) > FC+2	2(16.7%)	0(0.0%)	2(25.0%)	0(0.0%)	4.36
Zd > +3.0	2(16.7%)	1(16.7%)	2(16.7%)	0(0.0%)	2.45
Zd < -3.0	3(25.0%)	4(33.3%)	3(25.0%)	1(8.3%)	2.21
S-Con Positive	0(0.0%)	0(0.0%)	0(0.0%)	0(0.0%)	.
HVI Positive	1(8.3%)	0(0.0%)	0(0.0%)	1(8.3%)	2.09
OBS Positive	1(8.3%)	0(0.0%)	1(8.3%)	0(0.0%)	2.09
SCZI					
SCZI = 6	0(0.0%)	0(0.0%)	0(0.0%)	0(0.0%)	.
SCZI = 5	0(0.0%)	0(0.0%)	0(0.0%)	0(0.0%)	.
SCZI = 4	0(0.0%)	1(8.3%)	0(0.0%)	1(8.3%)	2.09
DEPI					
DEPI = 7	0(0.0%)	0(0.0%)	0(0.0%)	0(0.0%)	.
DEPI = 6	0(0.0%)	0(0.0%)	0(0.0%)	0(0.0%)	.
DEPI = 5	1(8.3%)	1(8.3%)	1(8.3%)	1(8.3%)	.00
CDI					
CDI = 5	0(0.0%)	0(0.0%)	0(0.0%)	0(0.0%)	.
CDI = 4	2(16.7%)	1(16.7%)	3(25.0%)	3(25.0%)	1.50
Miscellaneous Variables					
Lambda > .99	1(8.3%)	2(16.7%)	1(8.3%)	2(16.7%)	.76
Dd > 3	1(8.3%)	1(8.3%)	2(16.7%)	2(16.7%)	.76
DQv + DQv/+ > 2	1(8.3%)	3(25.0%)	3(25.0%)	2(16.7%)	1.50
S > 2	1(8.3%)	2(16.7%)	1(8.3%)	2(16.7%)	.76
Sum T = 0	8(66.7%)	6(50.0%)	9(75.0%)	8(66.7%)	1.73
Sum T > 1	1(8.3%)	0(0.0%)	2(16.7%)	4(33.3%)	5.84
3r + (2)/R < .33	6(50.0%)	7(58.3%)	3(25.0%)	4(33.3%)	3.43
3r + (2)/R > .44	1(8.3%)	1(8.3%)	2(16.7%)	0(0.0%)	2.18
Fr + rF > 0	6(50.0%)	3(25.0%)	3(25.0%)	2(16.7%)	3.63
Pure C > 0	0(0.0%)	0(0.0%)	1(8.3%)	0(0.0%)	3.06
Pure C > 1	0(0.0%)	0(0.0%)	1(8.3%)	0(0.0%)	3.06
Afr < .40	3(25.0%)	3(25.0%)	6(50.0%)	4(33.3%)	2.25
Afr < .50	8(66.7%)	6(50.0%)	7(58.3%)	8(66.7%)	.96
(FM + m) < Sum Shad	8(66.7%)	8(66.7%)	11(91.7%)	9(75.0%)	3.42
(2AB + Art + Ay) > 5	2(16.7%)	1(8.3%)	2(16.7%)	3(25.0%)	1.20
Populars < 4	3(25.0%)	4(33.3%)	5(41.7%)	5(41.7%)	.76
Populars > 7	1(8.3%)	1(8.3%)	3(25.0%)	4(33.3%)	3.43
COP = 0	1(8.3%)	3(25.0%)	2(16.7%)	1(8.3%)	1.58
COP > 2	2(16.7%)	3(25.0%)	1(8.3%)	2(16.7%)	1.42
AG = 0	9(75.0%)	10(83.3%)	8(66.7%)	7(58.3%)	2.02
AG > 2	0(0.0%)	0(0.0%)	1(8.3%)	2(16.7%)	3.91
MOR > 2	0(0.0%)	0(0.0%)	1(8.3%)	1(8.3%)	2.09
Lv2 Sp. Sc. > 0	0(0.0%)	0(0.0%)	1(8.3%)	1(8.3%)	2.09
Sum 6 Sp. Sc. > 6	0(0.0%)	1(8.3%)	1(8.3%)	1(8.3%)	1.07
Pure H < 2	4(33.3%)	2(16.7%)	3(25.0%)	3(25.0%)	1.42
Pure H = 0	1(8.3%)	1(8.3%)	0(8.3%)	0(8.3%)	2.09
p > a + 1	3(25.0%)	2(16.7%)	3(25.0%)	3(25.0%)	.41
Mp > Ma	4(33.3%)	2(16.7%)	3(25.0%)	4(33.3%)	.89

표 5. 각 집단에서의 AG ≥ 2인 사례의 빈도

Rorschach 변인	나란히 읽기		마주 읽기		x ² 값
	검사자-피검사자	검사자-피검사자	검사자-피검사자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이성	동성	이성	
AG < 2	12(100.0%)	12(100.0%)	10(83.3%)	8(66.7%)	8.38*
AG ≥ 2	0(0%)	0(0%)	2(16.7%)	4(33.3%)	

* p < .05

표 6. 각 Rorschach 카드에서의 인간 관련 반응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Rorschach 변인	나란히 읽기		마주 읽기		착석 위치 효과 F값	성차 효과의 F값	착석 * 성차 F값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검사자-피검사자 이성	검사자-피검사자 동성	검사자-피검사자 이성			
Card I							
H+Hd	.08(± .28)	.08(± .28)	.25(± .45)	.67(± .88)	5.82*	1.79	1.79
(H)+(Hd)	.67(± .49)	.75(± .86)	.66(± .77)	.33(± .49)	1.13	.41	1.13
H+Hd+(H)+(Hd)	.75(± .45)	.83(± .83)	.91(± .66)	1.00(± 1.04)	.54	.13	.00
Card II							
H+Hd	.67(± .65)	.91(± .67)	.42(± .51)	.92(± .99)	.35	3.17	.35
(H)+(Hd)	.08(± .28)	.33(± .65)	.08(± .28)	.01(± .42)	1.73	.43	1.73
H+Hd+(H)+(Hd)	.75(± .75)	1.25(± .96)	.50(± .52)	.91(± .90)	1.58	3.90	.03
Card III							
H+Hd	.91(± .66)	1.00(± .00)	1.08(± .28)	1.33(± .49)	3.88	1.72	.43
(H)+(Hd)	.00(± .00)	.08(± .28)	.08(± .28)	.08(± .51)	.19	.19	.19
H+Hd+(H)+(Hd)	.91(± .66)	1.08(± .86)	1.16(± .57)	1.42(± .66)	3.11	1.59	.06
Card IV							
H+Hd	.33(± .49)	.08(± .28)	.25(± .45)	.41(± .51)	.76	.08	2.13
(H)+(Hd)	.33(± .49)	.50(± .67)	.16(± .39)	.42(± .51)	.67	1.87	.08
H+Hd+(H)+(Hd)	.67(± .65)	.58(± .66)	.41(± .51)	.83(± .71)	.00	.87	1.82
Card V							
H+Hd	.50(± .67)	.25(± .45)	.42(± .90)	.25(± .45)	.05	1.24	.05
(H)+(Hd)	.17(± .39)	.17(± .57)	.25(± .45)	.08(± .28)	.00	.43	.43
H+Hd+(H)+(Hd)	.67(± .77)	.42(± .52)	.67(± .88)	.33(± .49)	.04	2.14	.04
Card VI							
H+Hd	.00(± .00)	.08(± .28)	.08(± .28)	.33(± .65)	1.48	3.11	1.48
(H)+(Hd)	.00(± .00)	.00(± .00)	.00(± .00)	.08(± .28)	1.00	1.00	1.00
H+Hd+(H)+(Hd)	.08(± .28)	.08(± .28)	.00(± .00)	.31(± .67)	1.48	3.11	1.48
Card VII							
H+Hd	.50(± .67)	1.08(± .90)	.66(± .49)	.83(± .93)	.04	2.82	.87
(H)+(Hd)	.33(± .49)	.25(± .45)	.25(± .45)	.25(± .62)	.08	.08	.08
H+Hd+(H)+(Hd)	.83(± .57)	1.33(± .65)	.91(± .28)	1.08(± .90)	.20	3.23	.81
Card VIII							
H+Hd	.08(± .28)	.25(± .45)	.17(± .65)	.45(± .52)	1.87	3.88	.46
(H)+(Hd)	.01(± .42)	.00(± .00)	.08(± .28)	.08(± .51)	.63	.00	.00
H+Hd+(H)+(Hd)	.08(± .49)	.75(± .86)	.66(± .77)	.33(± .49)	2.67	2.67	.29

표 6. 계속

Rorschach 변인	나란히 앉기		마주 앉기		착색 위치 효과 F값	성차 효과 의 F값	착색 * 성차 F값
	검사자-피검사 동성	검사자-피검사 이성	검사자-피검사 동성	검사자-피검사 이성			
Card IX							
H+Hd	.25(± .45)	.33(± .65)	.33(± .65)	.75(±1.13)	1.27	1.27	.56
(H)+(Hd)	.17(± .39)	.25(± .62)	.33(± .49)	.08(± .51)	.00	.31	1.27
H+Hd+(H)+(Hd)	.42(± .51)	.58(±1.16)	.66(± .65)	.83(±1.26)	.82	.36	.00
Card X							
H+Hd	.50(± .67)	.41(± .90)	.75(± .86)	.66(± .77)	1.14	.12	.00
(H)+(Hd)	.25(± .49)	.41(± .51)	.17(± .39)	.17(± .39)	1.73	.43	.43
H+Hd+(H)+(Hd)	.75(± .62)	.83(± .93)	.91(± .79)	.83(±1.11)	.06	1.06	.02
Card II+V+VI+VII+X							
H+Hd	1.75(±1.54)	1.91(±1.88)	1.75(±1.65)	2.67(±2.61)	.44	.91	.44
(H)+(Hd)	.50(± .90)	.92(±1.31)	.58(± .66)	.42(±1.08)	.18	.18	.18
H+Hd+(H)+(Hd)	2.25(±1.60)	2.83(±2.40)	2.33(±1.61)	3.08(±3.03)	.07	1.06	.02
Card III+IV+VII+IX							
H+Hd	2.00(±1.59)	2.50(±1.31)	2.33(± .77)	3.33(±2.06)	1.19	2.96	.32
(H)+(Hd)	.83(± .83)	1.08(±1.08)	.83(± .83)	.83(±1.27)	.40	.18	.98
H+Hd+(H)+(Hd)	2.83(±1.52)	3.58(±1.37)	3.17(±1.19)	4.17(±1.95)	1.07	3.89	.08
Total Cards							
H+Hd	3.83(±2.85)	4.50(±2.81)	4.33(±2.27)	6.67(±4.65)	1.99	2.52	.78
(H)+(Hd)	2.00(±1.34)	2.75(±2.05)	2.08(±1.37)	1.58(±1.73)	1.29	.07	1.71
H+Hd+(H)+(Hd)	5.83(±2.75)	7.25(±3.69)	6.42(±2.71)	8.25(±5.17)	.54	2.29	.04

* $p < .05$

표 7 .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들의 카드들 간 상관

	Card I (H+Hd)	Card II+V+VI+VII+X (H+Hd)	Card III+IV+VII+IX (H+Hd)	Total Cards (H+Hd)
Card I (H+Hd)				
나란히 앉기(N=24)	1.00(.)			
마주 앉기(N=24)	1.00(.)			
상관계수 간 차이 Z점수	.00			
Card II+V+VI+VII+X (H+Hd)				
나란히 앉기(N=24)	-.06(.77)	1.00(.)		
마주 앉기(N=24)	.43(.03)*	1.00(.)		
상관계수 간 차이 Z점수	1.69	.00		
Card III+IV+VII+IX (H+Hd)				
나란히 앉기(N=24)	-.16(.46)	.60(.00**)	1.00(.)	
마주 앉기(N=24)	.22(.30)	.64(.00**)	1.00(.)	
상관계수 간 차이 Z점수	-1.25	- .18	.00	
Total Cards (H+Hd)				
나란히 앉기(N=24)	-.02(.93)	.91(.00**)	.87(.00**)	1.00(.)
마주 앉기(N=24)	.54(.01*)	.94(.00**)	.84(.00**)	1.00(.)
상관계수 간 차이 Z점수	-2.02*	- .43	.36	.00

* $p < .05$, ** $p < .01$

* 상관계수 간 차이 Z점수는 각각의 상관계수 r을 Zr로 전환시킨 후 그 차이에 대한 Z점수를 구한 것임

표 8.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델	모델요약			
	R	R ²	Adjusted R ²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
1	.33	.11	.09	.55

ANOVA					
모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유의도
회귀	1.69	1	1.69	5.63	.02
잔차	13.79	46	.30		
전체	15.49	47			

* 예측변수 : (상수), 좌석배치
* 종속변수 : H+Hd

계수						
모델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된 계수	t값	유의도
		β	표준오차	Beta		
1	(상수)	-.29	.25		-1.17	.25
	좌석배치	.38	.16	.33	2.37	.02

제거된 변수들							
모델		Beta	In	t값	유의도	부분상관	중다공선허용치
1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	.18		1.33	.19	.20	1.00
	검사자 변수1(더미코딩 변수1)	-.08		-.57	.57	-.08	.98
	검사자 변수2(더미코딩 변수2)	-.05		-.38	.70	-.06	.98
	검사자 변수3(더미코딩 변수3)	-.05		-.38	.70	.06	.98
	검사자 변수4(더미코딩 변수4)	.12		.86	.40	.13	.98
	검사자 변수5(더미코딩 변수5)	-.02		-.12	.91	-.02	1.00

③ 검사자 변인의 효과에 대한 고려

표 8은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에 대한 좌석의 배치,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 검사자 변인효과에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차와 좌석의 배치 그리고 검사자 변인 모두 더미코딩을 하였다. 검사자가 모두 6명이었으므로 이를 나타내기위해 5개의 벡터(vector)가 필요하였으며 이 벡터를 검사자1에서 검사자5로 표시하였다. 스텝와이즈 절차에 의해 분석할 경우,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에 대한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 검사자 변인

의 회귀계수는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좌석의 배치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설명 변량은 11% ($R^2=.11$, Adjusted $R^2=.09$)이었다.

표 9는 AG 반응수에 대한 좌석의 배치,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 검사자 변인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스텝와이즈 절차에 의해 분석할 경우, AG 반응수에 대한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 검사자 변인의 회귀계수는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표 9. AG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델	모델요약			
	R	R ²	Adjusted R ²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
1	.43	.18	.17	.77

ANOVA					
모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유의도
회귀	6.02	1	6.02	10.27	.00
잔차	26.95	46	.59		
전체	32.98	47			

* 예측변수 : (상수), 좌석배치

* 종속변수 : AG

계수						
모델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된 계수	t값	유의도
		β	표준오차	Beta		
1	(상수)	-.71	.35		-2.02	
	좌석배치	.71	.22	.42	3.25	

제거된 변수들							
모델		Beta	In	t값	유의도	부분상관	중다공선허용치
1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	.18	1.33	.19	.20	1.00	
	검사자 변수1(더미코딩 변수1)	-.08	-.57	.57	-.08	.98	
	검사자 변수2(더미코딩 변수2)	-.09	-.65	.52	-.10	.95	
	검사자 변수3(더미코딩 변수3)	.03	.19	.85	.03	.80	
	검사자 변수4(더미코딩 변수4)	-.05	-.38	.71	-.06	.88	
	검사자 변수5(더미코딩 변수5)	.11	.82	.42	.12	.95	

로 나타났다. 단지 좌석의 배치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설명 변량은 18%($R^2=.18$, Adjusted $R^2=.17$)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 및 AG 반응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좌석의 배치 효과에서 검사자 변인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

본 연구 결과 검사자-피검사 간 성차 그리고 착석

위치와 성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구조적 요약 자료를 비롯한 모든 Rorschach 반응들에 대해서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연구에서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본 연구에서보다 더 통제된 연구절차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예비 연구 결과와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Rorschach의 구조적 요약 변인들의 경우, 대

부분의 변인들에서 검사자-피검자 간 착석위치와 성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AG 반응수에 대해서만 좌석 배치의 주효과가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마주보는 방식에 비하여 나란히 앉은 경우 평균 AG 반응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Exner가 종합체계 규준에서 AG 반응수와 관련된 이탈리아적 반응의 기준으로 삼았던 “ $AG > 2$ ”라는 지표를 적용할 경우 각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ner가 규준제작 과정에서 표집한 미국 성인 700명의 AG 반응수는 평균 $1.18(\pm 1.18)$ 개였다. 반면에 신경진과 원호택(1991)이 제시한 우리나라 성인 270 명의 AG 평균 반응수는 $0.66(\pm 0.99)$ 이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적 반응에 대한 기준을 다소 낮추어 “ $AG \geq 2$ ”를 적용할 경우 마주보는 집단에 비해 나란히 앉은 경우 AG 반응수가 .05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Rorschach에서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MMPI에서 피검자들은 임상척도 중 4번(Pd) 척도와 내용척도 중 ANG 척도 모두에서 집단 간 .05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MMPI 결과와 더불어 연구 절차 상 무선헌당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나란히 앉은 조건에 속한 피검자들이 덜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간주하는 것 보다는 단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지닌 사람들이 로샤 검사 상황에서 공격적인 내용의 반응을 덜 표현 혹은 언어화(verbalization)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차이는 상이한 검사자들이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다는 좌석배치 상의 차이에 따른 효과임을 시사해 준다.

아마도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지닌 사람들이 로샤 검사 상황에서 공격적인 내용의 반응을 덜 표현 혹은 언어화하게 되는 것은 마주보는 경우에 비해 나란히 앉을 경우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검사 세팅(setting)에서 피검자들이 보다 방어적(defensive)으로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MMPI의 K 척도 상에서 피검자들이 집단 간 .05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

면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나란히 앉은 조건에 속한 피검자들이 안정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재한 특성이라기 보다는 검사 세팅에 의해 유발된 상황적인 속성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예비연구 집단에 대해서 “ $AG \geq 2$ ”라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마주보는 집단의 경우에는 3명이 해당되었고 나란히 앉은 집단의 경우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반응 패턴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검증($X^2 = 3.43$, Sig. = .078) 상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사례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집수 48 명 역시 충분히 큰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 재검증 절차가 요망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각 카드에서의 인간 관련 반응수들을 비교해 본 결과, 첫 번째 카드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에서만 좌석배치의 주효과가 .0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란히 앉은 방식에 비하여 마주보는 경우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G 반응수와 관련된 결과에 비해 비교적 분명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란히 앉은 경우에 비해 마주보는 경우 검사자가 피검자의 로샤 반응에 대한 단서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비록 이원 변량분석 결과 상에서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가 첫 카드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효과가 비교적 검사 초기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형성된 반응 세트(set)는 나머지 카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나란히 앉은 방식의 경우, 카드 I 에서 실제 인간 관련 반응(H+Hd)을 나타내는 것과 인간 관련 반응이 평범반응이 되는 카드들(III, IV, VII, IX)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 카드 I 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II, V, VI, VIII, X)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 전체 카드들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들은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마주보고 앉는 방식의 경우, 카드 I에서 실제 인간 관련 반응(H+Hd)을 나타내는 것과 인간 관련 반응이 평범반응이 아닌 카드들(II, V, VI, VIII, X)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 전체 카드들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들은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카드 I에서 실제 인간 관련 반응(H+Hd)을 나타내는 것과 전체 카드들에서의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들 간 상관관계수는 t 검정 (혹은 Z검정) 결과 두 집단 간에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란히 앉는 것과 마주보고 앉는 것은 실제 인간 관련 반응을 나타내는 데 있어 해당 피검사자로 하여금 상이한 반응준비 태세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그 효과는 검사 초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 역시 중다회귀분석 결과 상이한 검사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다는 좌석 배치 상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로샤를 실시할 때 나란히 앉는 방식과 마주보고 앉는 방식은 AG 반응수와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와 관련해서 상이한 반응패턴을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로샤의 구조적 요약 자료들의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05의 유의도 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좌석 배치 상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구조적 요약 자료들의 대부분의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로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마주보고 앉는 것과 나란히 앉는 것은 서로 호환 가능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굳이 경험적인 근거를 논하지 않더라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반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가장 기본적인 심리측정 상의 원리인 표준화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Rapaport의 마주보는 좌석배치를

사용하여 실시하고서 Klopfer, Beck, Piotrowski의 기준으로 반응을 채점하며,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적 가설들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여러 체계의 연구자료들을 끌어모으는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험적인 자료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본 연구 결과는 배치 상의 차이가 해당 피검사자들의 로샤 반응들 간에 구조적인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 인간 관련 반응수(H+Hd)”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마주보고 앉는 것의 영향으로 첫 카드에서 “실제 인간 관련 반응(H+Hd)”을 보인 사람들은, 반응 준비 태세 혹은 반응 세트(set) 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 반응이 덜 나타나는 카드들(II, V, VI, VIII, X)에 대해서도 실제 인간 관련 반응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좌석배치 상의 차이가 피검사자들이 카드를 지각하는 양식을 변화시켜 각 로샤 카드에 내재한 고유한 특성들을 회색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Exner가 III, IV, VII, IX 번 카드들에서의 특정 인간 관련 반응들을 평범 반응으로 채점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은 마주 앉는 방식이 아닌 나란히 앉는 방식으로 로샤를 실시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라.

또 AG 반응수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나란히 앉는 방식으로 실시해서 얻은 A라는 피검자의 “AG=2”라는 점수와 마주보고 앉는 방식으로 실시해서 얻어진 B라는 피검자의 “AG=2”라는 점수는 외형 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재적인 가치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예비 연구와 본 연구를 다 합해서 나란히 앉아 실시한 로샤 자료 36개의 프로토콜 중 “AG=2”를 나타낸 사례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마주보고 실시한 로샤 36개의 프로토콜에서는 총 9례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좌석배치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약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좌석배치 상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로샤 검사에서 구조적 요약 자료들이 중요한 변인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Weiner (1998)가 적절히 지적한 바 있듯이, 그것은 단지 로샤

에서 중요하게 해석되는 대표적 자원들 중 하나일 뿐이다. 로샤검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구조적 요약 자료 이외에도 테마(thematic) 자료, 피검자들의 행동적 양상등 다양한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그 중의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 차이가 없다고 해서 좌석 배치 상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사실상 나머지 자료들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구조적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나타난 AG 반응과 “실제 인간 관련 반응(H+Hd)” 상의 차이가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로샤 검사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투사(projection)가 나타나는 주요한 무대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변인들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들에 내재한 의미는 구조적 요약 자료가 나타내는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가 기초하고 있는 사례수는 충분치 않다. 또 본 연구에서는 로샤검사와 MMPI 결과에 기초하여 검사자와 피검자 간 착석위치와 성차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검사 세팅(setting)과 관련된 피검자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보고 그리고 각 좌석 배치 상황 하에서의 피검자들의 행동 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후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신경진, 원호택 (1991). Exner 종합체계에 따른 한국 정상성인의 Rorschach 반응 분석 I.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1), 206-216.
- Baughman, E. E. (1951). Rorschach scores as a function of examiner differences,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15, 243-249.
- Beck, S. J., Beck, A. G., Levitt, E. E. & Molish, H. B. (1961). *Rorschach's Test I: Basic Process* (3rd Ed.). New York: Grune & Stratton.
- Exner, J. E., Leura, A. V. and George, L. M. (1976). A replication of the Masling study using four groups of new examiners with two seating arrangements and video evaluation. Workshops study No. 256(unpublished) Rorschach Workshop
- Exner, J. E. (1993). *The Rorschach: A Comprehensive System. volume 1*. New York: Wiley.
- Exner, J. E. (1995). *A Rorschach: Workbook for the Comprehensive System*. York: Wiley.
- Gibby, R. G., Miller, D. R. and Walker, E. L.(1953). The examiner's influence on the Rorschach Protocol.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425-428.
- Goodman, N. L. (1979). Examiner influence on the Rorschach : The effect of sex, sexpairing and warmth on the testing atmosphere. Doctoral Dissertation, Long Island University.
- Lord, E.(1950). Experimentally induced variations in Rorschach Performance. *Psychological Monographs*, 60, Whole No. 316.
- Masling, J. (1965). Differential indoctrination of examiners and Rorschach respons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98-201.
- Piotrowski, Z. A. (1958). The Psychodiagnostictest battery: Clinical application. In D. Brower, and L. E. Abt(Eds.), *Progress in Clinical Psychology*. Vol. 3. New York: Grune & Stratton.
- Piotrowsky, Z, A. (1969). A Piotrowski interpretation. In J. E. Exner, *The Rorschach Systems*. New York : Grune & Stratton.
- Schachtel, E. G. (1945). Subjective definitions of the Rorschach test situation and their effect on test performance. *Psychiatry*, 8, 419-448.
- Schafer, R. (1954).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in Rorschach Testing*. New York: Grune & Stratton.
- Weiner, I. B. (1998). *Priciples of Rorschach Interpret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원고접수일 1999. 9. 9

수정원고접수일 1999. 12. 17

게재결정일 1999. 12. 29 ■

The Effect of Subject-examiner Seating and Sex Difference on the Rorschach Responses

Young-gun Ko · Ji-hae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ubject-examiner seating and sex difference on the Rorschach responses. The subjects were undergraduate students. There were six examiners(3 males and 3 females) and each examiner administered Rorschach to two male and two female subjects under the side by side seating condition and face-to-face seating condition. Thus each examiner tested 8 subjec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ain effect of the seating position was shown on only AG variable among the structural summary variables of the Rorschach. When compared with the face-to-face seating position, the side-by-side seating position produced the smaller number of AG response. Second, the frequency of pure human related response(H+Hd) on Card I was smaller in the side-by-side seating than in the face-to-face seating. Furthermore, in the case of face-to-face seating, reporting of pure human related response(H+Hd) on Card I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delivering pure human related responses(H+Hd) on the other following cards.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hat there was a probability of the subjects being affected by cues from the examiner in the face-to-face seating unlike in the side-by-side seating. Also, the face-to-face seating position seems to make subjects have a responseset different from that of the side-by-side seating.